

사십 절의 숨겨진 역사 - 스물두 번째 수

에스겔 제3번

Jeff Pippenger

2026-08-08

에스겔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제사장이다. 1장에서 에스겔은 성소로 이끌려 들어간다.

이제 제삼십년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내가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더라. 그 달 초닷새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제오년이었더라. 여호와와 말씀이 갈대아인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분명히 임하였고, 거기에서 여호와와 손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데, 큰 구름과 스스로 감기는 불이 있으며, 그 사방에는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곧 불 한가운데에서는 호박 같은 빛이 나왔다. 또 그 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더라. 각각 네 얼굴이 있고 각각 네 날개가 있으며,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빛난 놋쇠의 광채같이 빛나더라. 그들에게는 그 네 방향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이 있었고, 그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들의 날개는 서로 이어져 있었고,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곧장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들의 얼굴의 형상은 이러하니, 그 넷이 오른쪽에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왼쪽에는 그 넷이 소의 얼굴을 가졌으며, 그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은 이와 같았고,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펴져 있었으며, 각각 둘은 서로 이어져 있고 둘은 그들의 몸을 가렸더라.

그들이 각각 곧게 앞으로 나아가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도 갔으며, 갈 때에 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또 그 생물들의 모양은 불타는 숯불 같기도 하고 등불의 모양 같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생물들 사이로 오르내렸으며, 그 불은 광채가 나고 그 불 가운데서 번개가 나왔다. 그 생물들은 번개의 번쩍임 같은 모양으로 달려갔다가 돌아왔다.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보라, 땅 위에 그 생물들 곁에 바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넷의 얼굴을 따라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과 구조는 녹주석의 빛깔 같았고, 그 넷은 한 모양이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갈 때에는 그 넷의 옆으로 나아갔고, 갈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또 그 둘레는 높아서 두려움을 자아냈고, 그 넷의 둘레에는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였다. 생물들이 갈 때에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그 바퀴들도 들렸다.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도 갔으니, 이는 그들의 영이 그리로 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며,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들렸으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갈 때에 이들도 갔고, 그들이 설 때에 이들도 섰으며, 그들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들려 올라갔으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라. 또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형상은 두려운 수정의

빛깔 같았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더라. 그 궁창 아래에서는 그들의 날개가 곧게 펴져 서로를 향하였고, 각기 둘은 이쪽 몸을 가리고, 각기 둘은 저쪽 몸을 가렸더라.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큰 물소리 같고 전능하신 이의 음성과 같으며 말소리 같고 군대의 소리 같더라. 그들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들이 서서 그 날개를 내렸을 때에, 그들의 머리 위 궁창에서 한 음성이 있었더라.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았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그 위에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로는 호박색 같은 빛이 있었고 그 안과 그 둘레에 불의 형상이 있었으며, 그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로도 내가 보니 불의 형상 같았고 그 둘레에는 광채가 있었더라. 비 오는 날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의 모양같이, 그 둘레의 광채도 그러하였더라. 이것이 곧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고 엎드려 얼굴을 대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노라. 에스겔 1:1-28.

슬픔에 잠긴 유배 선지자 에스겔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동일한 교훈을 가르치는 이상을 받았다. 그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북쪽에서 회오리바람이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큰 구름과 스스로 감기는 불이 있으며 그 사방에는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호박 빛 같은 것이" 나타났다. 서로 교차하는 기이한 모양의 여러 바퀴가 네 생물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위 높은 곳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그 위에" 있었다. "그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 같고 햇불의 모양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불 가운데서 번개가" 나갔다. "그리고 그룹들 가운데에는 그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바퀴 속에 바퀴가 있었는데, 그 배열이 너무도 복잡하여 처음 보기에는 에스겔에게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움직일 때에는 아름다운 정확성과 완전한 조화 가운데 움직였다. 하늘의 존재들이 이 바퀴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영화로운 청옥 보좌 위에는 영원하신 이께서 계셨으며, 보좌 둘레에는 은혜와 사랑의 표상인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그 광경의 두려운 영광에 압도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일어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였다. 그 후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경고의 기별이 주어졌다." Testimonies, 751.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 위에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그 둘로는 날더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부르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집에는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고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부절가락으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6:1-8.

이 이상은 에스겔의 마음이 음울한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던 때에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땅이 황폐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한때 사람들로 가득하던 성읍은 더 이상 거주하는 이가 없었다. 즐거움의 소리와 찬양의 노래는 더 이상 그 성벽 안에서 들리지 않았다. 선지자 자신도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한없는 야망과 잔혹한 포학이 최고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가 인간의 폭정과 불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는 그의 영혼을 괴롭혔고, 그는 밤낮으로 비통하게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발 강가에서 그의 앞에 제시된 놀라운 상징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드러내었다. 앗수르와 바벨론의 교만하고 잔인한 군주들 위에 자비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

예언자에게 이처럼 혼란 가운데 얽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퀴 같은 복잡한 일들은 무한하신 손의 인도 아래 있었다. 그에게 이 바퀴들을 움직이며 지도하시는 것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영께서 혼돈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 내셨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다. 수많은 영화롭게 된 존재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악한 사람들의 권세와 계책을 제어하고, 그분의 충실한 자들에게 선을 가져다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올 여러 시대에 걸친 교회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요한에게 열어 보이시고자 하셨을 때,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구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지시는 관심과 돌보심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 요한은 교회가 세상 권세들과 벌이는 마지막 큰 투쟁들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충성된 자들의 최후의 승리와 구원도 보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교회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더불어 치명적인 충돌에 들어가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고서 강요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전쟁의 연기와 소란을 넘어 바라보면서, 시온 산 위에 어린양과 함께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의 표 대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자들이었다. 또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았다.

“이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굳게 두어야 한다. 이는 바로 우리 앞에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당신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두려운 심판들을 말씀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마지막 날들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크고도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다. 장차 모든 살아 있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관심사가 될 한 시기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과거의 논쟁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논쟁들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 전개될 장면들은 아직 꿈에도 생각되지 않았다. 사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헌법을 변경하고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을 확보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위기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중대한 위기에서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상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본다. 이 세상은 통치자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들의 계획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늘의 위엄께서는 열방의 운명뿐 아니라 당신의 교회의 형편도 친히 맡아 다스리신다.

“우리는 주의 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염려와 고통과 당혹을 스스로 느끼도록 허용한다. 유한한 인간들이 책임의 짐을 지도록 내버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전진할 필요가 있다. 하늘의 사자들의 지치지 않는 경성과, 땅의 존재들과 관련된 그들의 봉사에서의 끊임없는 활동은, 하나님의 손이 바퀴 안의 바퀴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거룩한 교사는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에게, 옛적에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 허리를 동였노라.’”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자기의 손을 두고 계셨다. 이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성공을 주는 것은 신성한 능력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생활에 순결하게 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번개의 빠름과 같이 생물들 사이로 오가는 그 밝은 빛은 이 사업이 마침내 완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신속히 전진하게 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줄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조화롭게 진전시키실 수 있다. 유한한 마음에는 얽히고 복잡하게 보이는 것도 주의 손은 완전한 질서 가운데 유지하실 수 있다. 그분은 악한 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킬 방책과 수단을 마련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백성을 해하려는 계책을 꾸미는 자들의 모의를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형제들이여, 지금은 슬픔과 절망에 잠길 때가 아니요, 의심과 불신에 굴복할 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요셉의 새 무덤에, 큰 돌로 막히고 로마의 인으로 봉해진 채 계시는 구주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시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들의 투쟁과 소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련의 분량을 재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혼을 시험해야 하는 풀무불을 지켜보십니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제5권, 752-754.

에스겔은 십사만 사천에 들 후보자들을 대표하며, 그의 성소에서의 경험은 한 줄 한 줄 이사야와 요한의 성소 안에서의 경험과 일치한다. 우리는 지금 성전의 시험 가운데 있으며, 이것은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둘째이다. 그 기간은 말라기 3장의 성취로서 언약의 사자가 이루시는 정결의 기간이다. 세 가지 시험으로 이루어진 정결의 과정은, 모든 영혼을 시험해야 하는 말라기의 불같은 “용광로”이다. 셋째 천사가

1844년 10월 22일에 도착했을 때, 언약의 사자는 홀연히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그 시대의 슬기로운 처녀들을 지성소로 인도하여 그의 충성된 자들을 인치고자 하셨으나, 그 시대의 처녀들은 반역하였고, 그리하여 1856년에 빌라델비아적 밀러 운동은 라오디게아적 밀러 운동으로 변하였으며, 1863년에는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갑자기 도래한 셋째 천사는 1863년에 그의 임재를 거두었고, 이어 2001년 9월 11일에 다시 돌아왔다. 그로부터 이십오 년 후, 1844년 10월 22일로 예표되었던 성전 시험이 이제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십오는 상징적으로 이백오십의 예언적 십일조이며, 이백오십은 다니엘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제시된 역사의 상징이다. 이백오십과 이십오는 에스겔의 성소 이상 안에 있는 바퀴이다. 이십오는 언약의 사자가 이루는 정결케 하는 사역으로 표상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의 성취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의 분리를 상징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들어 있으며, 각 비유는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되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그들이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의 기쁨을 소유한 슬기로운 처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은혜의 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맡겨진 특별한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청지기 직분에 있어서 충성된 종으로 판정받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초장의 양으로 판정되어 그분의 오른편에 앉고, 그분의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지 않는 것이다. 25는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의 분리를 상징한다. 25는 에스겔의 바퀴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사로잡힘을 당한 지 이십오 년째 되는 해, 그 해의 첫머리 곧 그 달 열째 날, 그 성이 함락된 후 십사 년째 되는 바로 그 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가셨다. 에스겔 40:1.

포로 된 지 이십오 년은 한 시대적 문의 닫힘으로 표상되는 10월 22일로 표상된다. 1844년 10월 22일에는 두 부류가 분리됨에 따라 한 문은 열리고 한 문은 닫혔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는 네게 작은 능력이 있으나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3:7, 8.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의 천사에게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신다. 그 문은 “다윗의 열쇠”, 곧 엘리아김 위에 놓인 그 열쇠로 열리는 것이다.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부르리니, 내가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로 그를 견고하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라.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또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20-22.

엘리아김이 부름을 받는 날에, 그는 악한 썬나로부터 구별된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이 국고 맡은 자, 곧 궁내를 맡은 썬나에게 나아가 말하라. 네가 여기 무엇을 두었느냐? 네가 여기 누구를 두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는 자같이,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거처를 새기는 자같이 하였느냐? 보라, 주께서 너를 맹렬한 포로됨으로 사로잡아 가시며, 반드시 너를 단단히 싸시리라. 그가 반드시 너를 세차게 말아 공처럼 넓은 땅으로 던지시리니, 네가 거기서 죽겠고, 거기에서 네 영화의 병거들이 네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이사야 22:15-18.

썬나와 엘리야김의 비유를 성취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분리는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으며, 또한 여호야긴의 사로잡힘 제이십오년, 곧 기원전 573년 10월 22일에도 성취되었다. 에스겔 8장에서 예루살렘으로 표상된 재림교 내부의 악인들은 해를 향하여 경배하는 스물다섯 사람으로 표상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일법을 표상하며, 그것은 또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기를 끝마치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그 인치는 시기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고, 예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므로, 인침의 시작인 2001년 9월 11일은 주일법에서의 끝을 예시한다.

2001년 9월 11일은 1888년 미니애폴리스 집회에 의해 예표되었는데, 이는 화잇 자매가 뉴욕의 큰 건물들이 9/11에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 18:1-3이 성취되었다고 밝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는 1888년에서와 같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기 위하여 내려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1888년의 반역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일치시키며, 그들의 배도에 또한 이름 있는 이백오십 명의 사람들이 가담하였다고 하였다.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의 반역 가운데 있던 이백오십 명의 반역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해를 향하여 경배하던 스물다섯 사람을 예표하였다.

라오디게아 재림주의의 스물다섯 지도자가 일요일 법 앞에 절하고, 이백오십 명이 9/11에서 절하는 것은, 스물다섯의 상징성(곧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의 분리의 상징)을 가지고 인치는 때의 시작과 끝을 표하기 위하여 인치는 때를 드러낸다. 그것이 모세 시대의 이백오십 명의 반역자들이든, 에스겔 8장의 스물다섯 명의 사람들이든, 마태복음 25장의 분리에 대한 세 증인이든, 혹은 에스겔 40장의 포로 생활 제이십오 년이든, 스물다섯이라는 상징의 모든 현현은 각각 기원전 207년, 313년, 그리고 2026년에 그 결말에 이른 세 개의 이백오십 년 기간과 일치한다.

이십오란, 말하자면, 이십오의 모든 선들을 완전히 이르게 하는 이십오의 축이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왕국의 예언적 열쇠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사십 절의 숨겨진 역사에 명료함을 가져온다.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1989년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역사를 포괄하는 한 노선을 나타내며, 이것이 곧 사십 절의 숨겨진 역사라는 사실은 이미 세 증인 이상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는 이제 에스겔의 바퀴들을 개봉하고 계시며, 이는 마지막 시대의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완결지를 숨겨진 역사를 여시는 것이다.

이어지는 글들에서 우리는 말일에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에스겔의 바퀴들을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 제시된 에스겔 1장과 함께 인용된 『교회증언』 제5권의 구절은, 이후 글들을 전개해 나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할 기준점이 될 것이다. 바퀴들이 그 올바른 자리에 제시되고, 예언적 역사의 다른

바퀴들과의 정당한 교차점들이 함께 제시될 때, 우리는 1840년 8월 11일 첫째 천사를 능력 있게 한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이 또한 에스겔에 의해 삼백구십 년으로 표상되며, 예루살렘 포위의 일 년 반과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적 빛의 도래는 십사만 사천의 기를 드는 일을 식별하게 한다.

1299년 7월 27일부터 1337년까지는 요한계시록 9장 10절의 백오십 년(다섯 달)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삼십팔 년을 나타낸다. 그 백오십 년은 15절의 삼백구십일 년 십오 일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그 두 기간의 시작은 하나의 예언 노선을 이루며, 이는 조시아 리치의 1838년과 1840년 예언의 성취로 마쳐졌고 밀러파 운동의 일어남과 권능의 부여를 표지하였다. 재림주의의 시작에 있는 그 역사는 일요일 법에 앞서 기(旗)로서의 십사만 사천의 일어남을 표지한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삼백구십 년과 예루살렘 포위의 일 점 오 년(1.5년)은 1299년에 시작된 그 예언 노선의 끝을 표지한다.

다음 글에 앞서 『증언보감』 제5권의 그 구절을 숙고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